

## 일반논문

- 강영주 | 동북아시아 꿈 설화에 나타난 여성의 위상(位相)  
최기숙 | 노화의 공포와 공생 지향의 상상력  
- 구비설화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436-11 유형)를 중심으로
- 최정아 | 개화기 여성 가사에 나타난 여성 의식 고찰  
김순아 |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전략  
- 신현림·김선우의 시를 중심으로
- 곽상순 |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죽음  
-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저녁의 게임」을 대상으로
- 이광호 |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응시의 문제  
-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 엄미옥 | 현대소설에 나타난 이주여성의 재현 양상  
황인순 | 「아랑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 드라마 「아랑사또전」을 중심으로
- 권은선 | 유신정권기의 생체정치와 젠더화된 주체 만들기  
-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와 하이틴 영화를 중심으로



# 동북아시아 곰 설화에 나타난 여성의 위상(位相)

강영주\*

## 〈차례〉

1. 머리말
2. 동북아시아 지역 곰 문화의 특성과 전승 양상
3. 만주-통구스족 곰 설화에 등장하는 여성
4. 한국 곰 설화에 등장하는 암곰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곰 설화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핀 것이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의 개념을 빌려와, 동북아시아 지역 곰 설화에서 곰이 거주하는 공간과 인간인 남성과 여성이 사는 공간을 각각 문화와 자연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승되는 곰 설화에서 곰이 어떤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곰 설화의 양상이 왜 서로 유사한지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다음으로 만주-통구스족에 전승되는 곰 설화 가운데 남매의 동거와 여성의 이탈이 드러나는 구조를 갖는 곰 설화들을 통해 이 민족들이 바라보는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곰과 결합하기를 선택하는 누이의 행동이나 곰과 노는 일에 익숙한 여동생의 성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자연과 더 가까운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곰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살해 욕망은 남성을 문화의 자리에 놓고 여성은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자연과 더 가까운 자리에 놓으면서, 자연을 벗어나 인간이 만든 문화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냈다.

여성이 인간남성과의 동거를 깨고 자연으로 상징되는 곰과 결합하는 구도에서 곰의 성별이 수컷(남성)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 보았다. 수곰은 인간남성과 대척점에서 있으면서 한 쪽은 완전한 자연을, 다른 한 쪽은 완전한 문화를 상징했다. 문화로 상징되는 인간 남성은 자연으로 상징되는 곰을 제거함으로써 문화의 승리와 우월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사이에서 여성은 원래 문화의 자리에 놓여 있다가 곰이 속한 자연의 자리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성은 완전히 자연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았다. 여성 역시 자연을 초월하고자 하는 문화의 기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였다. 곧 동북아시아 곰 설화의 영역 속 여성은 자연과 문화의 중간적 위치에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전승되는 곰 설화의 자장(磁場)에서 한국 곰 설화의 위치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한국의 곰 설화에서 여성은 인간이 아닌 곰의 모습에서 출발했다. ‘여성= 곰’이라는 이야기 구조는 자연과 여성을 완전히 동일한 위치에 놓은 인식세계를 반영했다. 동북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한국의 곰 설화는 더 단순하고 분명한 자연과 문화의 대립을 드러냈다. 한국 곰 설화에서 여성은 자연과 문화의 경계자로서 애매모호한 지위를 갖지 않았다. 여성은 완벽히 자연의 본성을 지닌 곰의 모습으로 형상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욕망은 완벽히 문화를 향함으로써 여성은 남성으로 상징되는 문화로의 철저한 종속성을 보여주었으며, 본성과 욕망의 괴리 사이에서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다. 그럼에도 한국을 포함한 만주-통구스족의 곰 설화에서 곰과 여성은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자연과 문화의 대립 및 문화와 남성의 우월성을 구축시키는 양상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곰 설화, 곰 문화, 동북아시아, 여성, 자연, 문화, 만주-통구스족 곰 설화, 단군 신화

##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과 만주-통구스족이 거주하는 중국 및 러시아 경내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역민들의 곰 설화 속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지역의 곰 설화에서는 대체로 오빠(남동생)와 여동생(누이),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남성과 여성이 대비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곰 설화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은 남매의 동거를 여성이 깨고 숲으로 들어가 곰과 결합한다는 것이다. 인간여성은 곰과 동거하면서, 곰이 되어 새끼 곰을 생산하고, 인간남성은 이들을 찾아와 곰과 여성을 살해한다. 이와 달리 한국의 곰 설화는 애초에 여성을 곰으로 등장시켜 인간이 되길 소망하는 곰의 모습을 그려낸다. 곰과 결합한 남성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 홀로 혹은 아들과 함께 곰의 세계로부터 이탈을 꿈꾸고 이를 실현시킨다. 이야기에서 여성은 언제나 ‘곰’의 입장에 서 있다. 이 지역민들은 곰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였고, 왜 곰을 여성과 연결시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곰은 오랜 세월 숲의 제왕으로 인식되었다. 원시사회에서 곰은 지역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해주는 귀중한 자원인 동시에 목숨을 걸고 도전해야 하는 위험한 존재였다. 나아가 인간과 유사한 곰의 특성은 지역민들로 하여금 곰을 사람과 연결시키도록 했다. 곰은 ‘자연’의 특성을 대변하는 동시에 인간사회를 넘나들 수 있는 중간자적 존재였다. 인간사회의 ‘여성’도 자의와 타의에 의해 그러한 곰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여성이 자연과 인간세계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지역민들이 곰과 여성을 연결 짓고 동일시하는데 매우 자연스러운 근거를 제공했다고 본다.

최근 한국의 학자들은 지역적 경계를 동북아시아로 확대시켜 거대한 곰 문화권 속에서 곰 설화의 양상을 살펴왔다. 특히 곰 설화와 곰 의례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곰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sup>1)</sup> 이정재<sup>2)</sup>는 한국과 북시베리아의 신화 및 제

의들을 연결시켜 한국 곰 신화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광진석<sup>3)</sup>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오로치족과 울치족의 신화와 신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곰 의례를 정리하였다.

한편 곰 설화 속의 ‘여성’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이유경<sup>4)</sup>과 강영경<sup>5)</sup>은 변신과 재생을 통해 생산성과 풍요성을 구현하는 지모신으로서 웅녀를 보았다. 특히 강영경은 수렵생활문화에서 농경생활문화를 포용하는 변화의 시기에 웅녀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조현설<sup>6)</sup>은 단군 신화의 웅녀와 주몽신화의 유희를 증거로 남성권력의 제도담론인 건국신화 속에서 여성이 타자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필자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민들의 곰 설화에 곰과 여성의 친연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곰 설화에서 유독 남성과 여성이 대비되는 구조의 이야기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야기 속에서 여성은 남성을 떠나 곰과 결합하여 곰으로 변모하거나 곰

- 
- 1) 김현선, 『동북아시아 곰신화 비교와 곰의례 연구-한국, 만주, 아이누의 곰신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민속과 문화』 10, 2005; 김일겸, 『곰 신화와 제의의 기원과 변화』, 『동북아 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009; 강정원, 『시베리아의 곰 신화와 곰 의례』, 『동북아 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009; 조운경, 『동북아시아 곰신화 곰전설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중국 어룬춘족 어원커족의 기원신화와 한국 웅진전설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28, 2011.
  - 2) 이정재, 『시베리아의 곰제의, 곰신화와 단군신화의 비교-곰 모티브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보』 6, 1996; 이정재, 『동북아의 곰문화와 곰신화』, 민속원, 1997; 이정재, 『시베리아 부족신화』, 민속원, 1998.
  - 3) 광진석, 『시베리아 오로치족의 신화와 신앙에 대한 연구』, 『구비문학연구』 1, 2001; 광진석, 『시베리아 울치족의 신앙과 신화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24, 2004; 광진석, 『시베리아의 만주·통구스족 신화론』, 지식과 교양, 2011; 광진석, 『시베리아 오로치족 곰 의례의 양상과 원시적 사고에 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32, 2012.
  - 4)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6.
  - 5) 강영경, 『단군신화에 나타난 웅녀의 역할』, 『여성과 역사』 16, 2012.
  - 6) 조현설, 『웅녀·유희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그 자체로 등장하여 인간남성과 결합함으로써 ‘곰=여성’의 등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글은 아래와 같은 관점 아래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 Strauss)의 개념을 빌려와, 동북아시아 지역 곰 설화에서 인간인 남성과 여성이 사는 공간과 곰이 사는 공간을 각각 ‘문화’와 ‘자연’으로 나누었다. 실제로 ‘문화’와 ‘자연’은 그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문화를 인간의 의식이라는 관념으로 사용할 뿐더러,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또 하나는, 인류 사회에서 남성 지배가 보편적 현상이라는 인류학계의 입장을 따라, 여성은 남성보다 ‘덜 문화적이고’ ‘더 자연적인’ 존재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여성 인류학자 세리 오토너는 여성의 신체적 기능으로 인해 여성을 쉽게 ‘자연’으로 연상하는 것이 여성 종속의 문화적 근거로 작용한다고 본다.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 사회적 역할, 인성은 여성을 남성보다 ‘자연에 더 가까운 존재’로 규정하고, 결론적으로 사회가 여성을 ‘문화적 목적’을 위해 통제하고 조종한다고 보는 것이다.<sup>7)</sup>

## 2. 동북아시아 지역 곰 문화의 특성과 전승 양상

곰과 가까이서 마주친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일까? 북반구에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곰인 갈색곰(큰곰)<sup>8)</sup>은 몸길이 최대 3미터로 흑곰보다 거대한 몸집과 위엄을 갖고 있다. 이 거대한 곰은 시베리아·중국 북부·만주·일본 홋카이도·한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수시로 마주쳤고, 그들의 곰 설화에 종종 등장했다. 북반구 극지와

7) 미셸 짐발리스트 로잘도 외, 『여성·문화·사회』, 권숙인·김현미 옮김, 한길사, 2008, 41쪽.

8) 베르트 브루너, 『곰과 애증의 역사』, 김보경 옮김, 생각의 나무, 2010, 15쪽.

그에 인접한 삼림지대에 사는 거주민들은 거대한 갈색곰을 통해 귀중한 식량을 제공받았고, 숲의 야성을 온몸으로 경험하였다. 곰은 오랜 세월동안 이들의 원시사회에서 숲의 제왕으로 인식되었다.

북반구의 삼림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곰을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 이곳 거주민들에게 곰은 사냥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숭배와 신앙의 대상이었다. 곰을 사냥할 때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례를 행하였다. 이러한 ‘곰 의례’가 행해진 지역에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곰 설화가 전해진다. 곰이 사람으로 변하여 한 집단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수곰과 여성의 결합으로 부족이 시작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곰 설화의 주된 내용이 된다.

이처럼 곰 사냥과 의례, 이와 관련된 설화와 전승을 하나로 묶어 ‘곰 문화’라 하고, 그 문화가 확인되는 지역을 ‘곰 문화권’이라고 부른다. 곰 문화권은 북유럽에서 동·서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 및 연해주와 홋카이도를 지나 북아메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에 걸쳐 있다.<sup>9)</sup> 이 지역 거주민들은 모두 곰에 대한 존경심과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 특히 만주-통구스 민족들의 일상 숭배의 습속에서 곰에 대한 숭배의 습속은 태고시절의 원시적인 토태 숭배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민족들은 모두 곰에게 친족관계 중에서의 가장 높은 호칭을 사용한다.<sup>10)</sup>

오로촌족<sup>11)</sup>과 에벤키족<sup>12)</sup>은 곰에 대한 특수한 금기와 숭배의식을 갖

9) 이평래 외, 『동북아 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009, 9쪽.

10) “바실레비치에 따르면 곰을 둘러 부르는 이름이 약 50개가 있다. (중략) 네기달족은 곰을 특히 ‘자자’(러시아어 “아저씨”), 라무트족은 ‘더독서’(러시아어 대두쉬카, “할아버지”)라 표현한다. 독점적일 정도는 아니지만 특별히 수가 많은 것은 친척 용어다.” 한스-요아힘 파프르트, 『통구스 족의 곰 의례』, 강정원 옮김, 태학사, 2007, 90~91쪽.

11) 오로촌족: 어룬춘족(鄂倫春族) 또는 오로촌족(러시아어: Ороchonы, 영어: Oroqen)은 통구스족의 한 무리에 속하는 민족이다. 러시아(바이칼 호에서 쿠릴 열도까지)와 중국(만주 일부 지역, 내몽골 자치구)에 거주한다.

12) 에벤키족: 에벤키족(러시아어: Эвенки) 또는 어윈커족(鄂溫克族)은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에 사는 민족이다. 본토 지역은 동쪽은 태평양 오흐츠크해(Okhotsk) 연안, 서쪽은 오비강(Ob)과 이르티슈강(Irtysh)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시베리



고 있다. 오로촌족은 곰을 쏘아 명중시킨 뒤 죽어가는 곰을 보고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부투차’ 혹은 ‘아과차’라고 하는데 이는 ‘주무시다’는 뜻이다. 두 부족은 곰을 잡은 후에 곡을 하는 시늉을 하고, 곰의 가죽을 벗기고 장례를 지내며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많은 사냥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린다.<sup>13)</sup>

곰 설화에 등장하는 곰의 거주공간은 언제나 ‘숲’이다. 인간은 숲에 들어가 곰을 만났으며 곰은 숲을 대변하였다. 바깥에서 바라보는 숲은 언제나 평온하고 넉넉하다. 그러나 숲에 들어서면 맞닥뜨리는 사방의 어두움과 검고 축축한 흙덩이에 인간은 알 수 없는 공포와 불결함을 느낀다. 온갖 동식물들의 거만한 향연과 치열한 투쟁, 때에 따라 죽었다가 다시 숨쉬는 숲의 위계질서에서 인간은 거대한 야성의 아우라를 발견했다. 그리고 ‘곰’은 그러한 숲의 기운을 상징적으로 대표해 왔다.

동북아시아 지역민들에게 곰은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로 인식되었다. 높은 지능, 직립보행이 가능하고 앓을 수 있다는 점, 또 가죽을 벗겼을 때 구성 비율상, 사람의 몸을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곰은 인간과 비슷했다. 더불어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긴 겨울잠을 잘 수 있는 곰의 독특한 생활 방식은 ‘죽음과 부활’의 상징으로 다가왔다.<sup>14)</sup> 토탐은 흔히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도전의 대상이 되는 동식물로써 한 부족의 도덕규범을 조종하며 엄격한 의식과 의례를 통해 다뤄진다. 중국 동북부 및 시베리아 동북부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만주-통구스족은 각종 곰 설화와 축제를 통해 곰 토탐 숭배 습속을 보여준다.

조선민족은 오랜 세월동안 만주-통구스족과 가깝게 살아온 까닭에 원시문화의 단계에서 이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조선민족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부여, 고구려 등 고대 국가의 명칭이 나타나기 전에 중국

아 면적의 약 70%에 해당되며, 예니세이강(Enisei) 동쪽의 동시베리아(Siberia) 전역과 중국 동북지구 북부, 몽골 북부, 연해주, 사할린 북부 등에 거주한다.

13) 김관웅,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동이문화의 연관성-곰 토탐 숭배를 주축으로 한 신화전설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15집, 2011, 15~16쪽.

14) 한스-요아힘 파프르트, 『통구스 족의 곰 의례』, 강정원 옮김, 태학사, 2007, 22쪽.

의 고대인들은 조선의 선민들을 ‘예(濊)’나 ‘맥(貊)’으로 불렀는데, ‘맥’은 숲 속의 큰 곰을 뜻하였다.<sup>15)</sup>

우리나라 문헌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통해서도 선사시대 곰 토tem 숭배의 흔적들을 접할 수 있다. 고조선 ‘단군신화’는 물론이고 동명왕 전설에서 고구려의 시조모인 유화가 천신의 아들 해모수를 만난 장소는 곰과 관련된 웅심산(熊心山), 웅신산(熊神山)이다.<sup>16)</sup> 고구려 고분벽화인 각저총 벽화, 장천1호 무덤 북벽 벽화 등에서 단군신화 관련 소재를 찾아 고고인류학의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들은 고구려 시기에도 곰 숭배 신앙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장천 1호 무덤 벽화에서 신단수(神檀樹)와 연결될 수 있는 나무의 형태가 발견되었는데, 동굴 속에 곰이 칩거하는 모습이 세계수(世界樹)의 성격을 띤 나무와 연결된 형태로 드러났다. 이는 곧 단군신화의 내용과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다.<sup>17)</sup>

어떤 남자가 나무하러 왔다가 암곰에게 잡혀 굴에서 동거한다. 몇 해 동안 남자와 곰 사이에 새끼 두 마리가 태어난다. 자식을 낳은 후 안심하고 곰이 굴을 비운 사이 남자는 도망쳐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뒤늦게 알게 된 곰이 따라와 자식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남자는 가버린다. 곰은 두 자식을 물에 던지고 자신도 몸을 강물에 던진다. 곰이 죽은 후부터 배가 뒤집히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나라에서 사당을 지어 곰을 위로해 주자 그런 일이 그쳤다.<sup>18)</sup>

충청남도 공주 지방에 전해오는 ‘곰나루 전설’이다. 백제는 475년에 천도한 고장의 이름을 웅진(熊津)이라 정하고 웅진을 지나 남쪽으로 흐르는 강을 웅천(熊川), 즉 곰나루라 명명하였다. 북방에서 발원한 고구려와

15) 김관웅, 위의 글, 19~20쪽.

16) 김관웅, 위의 글, 20쪽.

17) 조법중,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2006. 김관웅, 위의 글에서 재인용, 20쪽.

18)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13쪽.

깊은 문화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백제가 곰 토템 숭배의 원시문화적 요소를 드러내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72년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에서 이를 증명하는 석조웅신상(石彫熊神像)이 발굴되었고, 현재도 이 지방에는 웅천 나루터에 관한 ‘곰나루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sup>19)</sup>

어떤 사냥꾼이 사냥하러 갔다가 암곰에게 잡혀 굴에서 동거한다. 몇 해 함께 사는 동안 곰은 새끼 한 마리를 낳는다. 그후 사냥꾼은 암곰이 굴을 비운 사이 도망친다. 뒤늦게 알게 된 곰이 새끼를 안고 따라오자 사냥꾼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넌다. 화가 난 곰은 새끼를 두 쪽으로 찢어 한쪽을 사냥꾼에게 던진다. 남은 쪽은 곰으로, 던져진 쪽은 에벤키인으로 자라났다.<sup>20)</sup>

위 이야기는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에 거주하는 에벤키족의 기원신화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주의 곰나루 전설과 매우 흡사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 암곰과 인간남성이 만나 결합하고 후계를 생산하는 이야기의 구조에서 암곰은 인간여성과 동일한 존재이다. 사람과 곰은 동일한 생명체로 만나 결합하고 후손을 생산하며, 태어난 새끼는 분리돼 각각 곰과 에벤키족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전설에서 곰과 사람에 대한 동질적 인식과 곰 토템 숭배의 원시적 관념을 엿볼 수 있다.

고조선 멸망 이후 많은 거주민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하고 그 후 부여라는 고대국가로, 또 다시 고구려와 백제로 분리되어 나갔다. 후에 멸망한 부여는 말갈을 형성하였다. 말갈은 다시 흥안령, 흑룡강, 장백산 등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여진족과 만주족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고조선이나 그 후속 국가들인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신화와 전설 속에 나타나는 곰 토템 숭배의 흔적들이 만주-통구스족의 곰 설화에 나타나는 흔적들과 서로 유사하거나 통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sup>21)</sup>

19) 김관웅, 앞의 글, 26쪽.

20) 조현설, 위의 책, 14쪽.

21) 김관웅, 앞의 글, 23쪽.

### 3. 만주-통구스족의 꿈 설화에 등장하는 여성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한계를 초월하여 세계를 통제한다. 이 때 문화를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자연’(nature)과 ‘문화’(culture)<sup>22)</sup>는 물론 개념적인 범주다. 실제로 원시 부족들이 문화적인 상태와 자연적인 상태를 의식적으로 구분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자연적 존재로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거나 그에 좌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규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sup>23)</sup>

모든 문화에는 자연의 작용과 인간 의식, 그것의 산물인 문화적 작용 사이에 구별이 존재한다. 여기서 인간이 의식하는 문화의 특수성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문화가 자연적 조건을 초월하고 자연적 조건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으로 인간은 모든 문화가 자연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자연보다 우월하다고 단언하며, 그러한 우월성은 자연을 변형시킬 수 있는, 즉 ‘사회화’하고 ‘문명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sup>24)</sup>

모든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가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점<sup>25)</sup>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남성은 문명, ‘문화’와 동일시

22) ‘자연’(nature)과 ‘문화’(culture)라는 이분법적 개념은 레비 스트로스의 대립적 개념에서 갖고 왔다. 레비 스트로스는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인 심리-생물학적 구조가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성을 갖는 존재이다. 즉, 자연적으로 부여된 절대성을 지닌 존재이자 규칙과 문화라는 상대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레비 스트로스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자연과 문화의 대립이 모든 사회 체제에 존재하고, 나아가 인간의 보편적 사고 구조라고 주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레비 스트로스, 『야생의 사고』, 안정남 옮김, 한길사, 1996 참조.

23) 세리 오트너, 『여성은 자연, 남성은 문화?』, 『여성·문화·사회』, 권숙인·김현미 옮김, 한길사, 2008, 136~137쪽.

24) 세리 오트너, 위의 글, 136~137쪽.

25) 인류학에서 여성을 연구할 때 제기되는 첫 번째 질문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거나 더 많은 권력을 지녔다는 것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사회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성의 원초적 탁월함을 숭배하는 신화들이나 모권제 사회를 암시하는 고고학

되었고 여성은 남성보다 ‘자연’에 더 가까운 존재로 간주되었다. 즉 ‘남성’과 동일시되는 ‘문화’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여성’을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인정하지만 동시에 좀 더 ‘자연’에 뿌리를 둔 또는 ‘자연’과 직접적인 유사성을 가진 존재로 여성을 바라본다는 것이다.<sup>26)</sup>

여성의 지위는 월경, 임신 및 출산, 양육과 같은 생물학적 기능과 특정 남성에 대한 성적인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보부아르의 입장에 따르면 여성의 몸은 자기 자신의 요구사항보다는 남자의 필요에 더 순응한다.<sup>27)</sup> 여성의 신체적 특징 중 하나인 월경은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지 주기적으로 모든 여성에게 불편함과 번거로운 고통을 안겨준다.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월경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증상으로 여겨졌다. 사회는 월경을 이유로 여성에게 금기를 부여하고, 불결한 신체와 정신을 정결케 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은 그 자신의 신체적 제약과 함께 사회적 제약도 감수해야 했다. 즉 여인의 몸은 긴 시간에 걸쳐 개인의 건강과 체력을 희생시키면서 남성보다 더 종(species)에 제약을 받아온 것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이유를 토대로 ‘여성’은 인간의 사고와 의지로 자연적 한계를 초월하려는 면보다 신체의 한계, 혹은 자연적 본성에 부합하는 면으로써 설명되었다. 또 그러한 생물학적 기능으로 남성에 비해 ‘공적’인 자리보다 ‘가내(家內)’지향적인 자리에 놓이기도 하였다.<sup>28)</sup>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럽고 위험한 일, 예를 들어 아이를 낳고, 죽은 자를 위해 곡을

적 유산들이 발견되지만 현대 인류학에서는 실제 ‘모권제’ 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신화들이 특정 문화 집단의 꿈이나 환상을 표현한 것이거나 이런 신화가 있는 사회와의 정치적 동조를 확인하는 행위라고 믿는다. 실제로 현재 모권제를 뒷받침하는 인류학적 자료들은 빈약한 편이다. 외관상 평등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원시사회에서도 여성의 종속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내용은 『여성·문화·사회』의 여성인류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따랐다.

26) 미셸 짐발리스트 로잘도, 『여성·문화·사회:이론적 개관』, 위의 책, 41쪽.

27) 보부아르는 여성의 생리적 구조와 발달, 기능을 살핀 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species)에 희생물이다”는 입장을 취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동서문화사, 2009 참조.

28) 미셸 짐발리스트 로잘도, 위의 글, 62~69쪽.

하고, 배설물을 치우는 일을 더 많이 담당한다. 이런 가운데 여성에 대한 문화적 개념은 종종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징, 출산력, 성행위, 모성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sup>29)</sup>

이와 같은 점들을 수용하면서, 한반도와 가장 인접해 있는 중국 동북과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사는 만주-통구스 민족들의 곰 설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매의 동거와 여성의 이탈이 드러나는 구조를 갖는 곰 설화들을 살펴 이 민족들이 바라보는 여성의 위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① 남동생이 누나와 혼인하고 싶어 했지만, 누나는 집을 떠나 곰에게 시집을 갔다. 남동생은 그들의 집을 찾아가 함께 살았다. 그는 성장한 다음에 우연히 곰과 싸우다가 자신의 자형(곰)을 죽였다. 그러자 누나는 새끼 곰을 거느린 암곰을 죽이지 말도록 말한 후에 새끼 곰을 데리고 숲으로 가버렸다. 얼마 후에 그는 암곰을 죽였다. 그는 죽은 곰의 몸뚱이에서 여성용 가슴 가리개와 장식물을 발견한 후 자신의 누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새끼 곰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새끼 곰이 굴을 파려고 하자 그는 곰에게 통나무 구조물을 지어 주었다. 어느 날 새끼 곰은 사라져버렸다. 이때부터 오로촌족은 곰과 관련되는 것을 금지하였다.<sup>30)</sup>

만주-통구스족에 속하는 오로촌족에 전해 내려오는 곰 설화이다. 등장하는 인물은 남동생과 누나, 그리고 숲에 사는 곰이다. 누나는 남동생과의 혼인을 거부하고 숲으로 가서 곰과 혼인한다. 이후 남동생은 누나와 혼인한 곰을 살해하고 얼마 후에 암곰으로 변한 누나마저 살해한다. 이야기에서 누나는 인간 남성과의 결합대신에 동물인 곰과의 결합을 선택한다. 누나가 생산한 후계 역시 새끼 곰으로 등장한다.

누나가 곰에게 시집가는 행위는 남동생이 속한 인간 세계를 떠나 곰이

29) 미셸 짐발리스트 로잘도, 위의 글, 73~74쪽.

30) 박진석, 앞의 책, 지식과 교양, 2011, 181쪽.

속한 자연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누나는 처음에 인간으로서의 여성으로 등장하지만, 자연으로 상징되는 ‘곰’을 가까이하고 이후 곰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누나는 인간이지만 같은 인간인 남동생보다 숲속의 동물인 곰을 가까이 하고, 곰을 잉태한다. ①에 등장하는 인간여성은 점차 인간에서 곰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인간 여성을 상징하는 “가슴 가리개”와 “장식물”을 마지막까지 소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옛날에 오빠와 누이동생이 함께 살았다. 누이동생이 곰과 함께 놀았지만, 오빠는 이 사실을 몰랐다. 오빠가 우연히 이 일을 알고서 곰을 죽여 버렸다. 누이동생은 오빠에게 화를 내면서 숲으로 가버렸다. 숲으로 간 누이동생은 암곰으로 변하였다. 그 후 암곰은 새끼 곰 두 마리를 낳았다. 어느 날 오빠가 사냥을 나갔다가 암곰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때 상처를 입은 암곰이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왜 저를 죽이려 합니까? 저는 당신의 누이동생입니다. 당신이 제 가족을 벗기면 저의 가슴 가리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이동생은 죽으면서 오빠에게 곰 고기의 사용을 위한 의례를 일러 주었다.<sup>31)</sup>

②는 연해주와 흑룡강(아무르강) 유역에 거주하는 통구스족인 우데계 족에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여동생은 곰과 함께 노는 친밀한 사이였는데, 오빠가 이 일을 알고 곰을 살해한다. 남성 혹은 인간세계에 있어서 ‘곰과 함께 노는’ 행위가 금기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여성은 ‘곰과 노는’ 존재로써, 남성이 속한 사회보다 곰이 속한 자연과 훨씬 가까운 존재로 등장한다. 곰이 죽자 여동생은 분노하며 숲으로 떠나버린다. 숲으로 떠난 여동생은 역시 곰으로 변하고 새끼 곰을 낳으며, 얼마 후 오빠에게 살해된다.

31) 앞의 책, 183쪽.

③ 두 명의 남매 가운데 누이동생이 곰 굴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곰은 자신의 발을 빨게 하여 그녀를 길렀다. 그녀는 봄에 집으로 돌아와 두 명의 아이-새끼곰과 어린아이-를 낳았다. 새끼 곰은 자신의 형제인 ‘토르가니’와 함께 자라다가 숲으로 가버렸다. ‘토르가니’는 새끼 곰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그의 흔적만을 발견했다. 그는 나무에서 곰이 할퀴 흔적을 발견하고서 곰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곰이 할퀴어 그에게 상처를 냈지만 그는 날카로운 돌로 곰을 죽였다. 곰은 죽으면서 그에게 곰 축제인 ‘우르카착’을 거행해야 한다고 말했다.<sup>32)</sup>

③은 시베리아 북동부의 오호츠크해 연안에 사는 북방 퉁구스족인 에벤족(라무트족)에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서도 누이동생은 망설이지 않고 곰 굴속으로 들어간다. 누이동생은 굴에서 곰과 겨울을 함께 보내고 봄에 다시 인간 사회로 돌아와 새끼곰과 사내아이를 낳는다. 누이동생은 자연의 공간인 ‘곰 굴’과 인간의 공간인 ‘집’을 오가며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인물이고, 이를 증명하듯 곰과 인간의 생명체를 동시에 잉태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

실제로 에벤족의 곰 축제인 ‘우르카착’은 ‘곰이 원래 어머니였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축제에서 여자에게만 부여되는 금기는 그러한 사고에서 비롯된다. 여자들은 곰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 ‘우르카착’은 한 부족 내의 남자들만의 축제이다. 여자들은 축제 첫 날에는 참여할 수 없고, 머리와 몸통 앞부분의 곰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축제 마지막 날에 치르는 곰 장례에도 여자들은 참가할 수 없는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곰과 더 가까운 친족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3)</sup>

위의 세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남동생(오빠)으로 등장하는 남성과 누나(여동생)로 등장하는 여성의 공존이 깨지고, 여성이 숲 속으로 들어가 곰과 결합한 뒤 후계(곰)를 낳고, 곰과 곰으로 변한 여

32) 박진석, 앞의 책, 163쪽.

33) 위의 책, 159~160쪽.



성이 살해당한다는 내용이 큰 틀을 이룬다. 인간과의 결합을 마다하고 오히려 곰과 결합하기를 선택하는 누이의 행동이나 오빠와 달리 곰과 노는 일에 익숙한 여동생의 성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자연’과 더 가까운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숲으로 들어가면서 여성의 유전자는 곰의 유전자로 변한다. 인간과 곰의 결합에서 새끼 곰이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유전자가 아닌 곰의 유전자가 후계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는 일은 언제나 남동생(오빠)으로 등장하는 ‘남성’의 몫이다. 남성은 우연이든 아니든 언제나 여성과 결합한 곰을 살해하고, 여성이 곰으로 변했을 경우에도 살해한다. 이어 남성은 여성이 생산한 새끼 곰을 죽이지 않고, 인간세계로 데려와 양육하는 행동을 보인다. ①에서 “새끼 곰이 굴을 파려고 하자” 남성은 “곰에게 통나무 구조물을 지어”준다. 이는 ‘자연’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새끼 곰에게 ‘문화’를 교육시키고 이 시스템에 적응되도록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곰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살해 욕망은 남성을 문화의 자리에 놓고 여성은 자연과 더 가까운 자리에 놓으면서 자연을 벗어나 인간이 만든 문화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낸 것이라 본다. ③에서 새끼 곰과 남자 형제의 대결을 통해 인간인 남자형제가 “날카로운 돌”을 들고 새끼 곰을 살해하는 내용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자연과 문화의 대립 속에 문화의 우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34) 신화에서 “자연”은 양가적 혹은 이중적으로 읽힌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자연은 어머니와 같이 근원을 의미하는 동시에 비인간 혹은 문화와 대립되는 지점에 있다. 때문에 신화는 자연에서 분리되어 문명화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며, 동시에 자연의 성질, 인간 이전의 원형질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곰의 죽음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의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글에서는 자연과 문화의 대립을 젠더적 관점으로 살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설화 속의 “자연”과 곰 살해 내용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 구축은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④ 옛날에 처녀가 우연히 꿈의 굴에 떨어져 거기서 꿈과 함께 겨울을 보냈다. 이듬해 봄 그녀는 임신한 채로 부모에게로 돌아왔다. 그녀는 새끼 꿈을 낳았는데, 그 꿈이 그녀의 부모를 모셨다. 그 후에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남자아이를 낳았다. 꿈과 아이 형제는 자라면서 가정을 돌보았다. 형제들이 다 자라자 서로의 힘을 비교해 보고 싶었다. 형인 꿈이 먼저 공격하자 동생이 말했다. “내게는 발톱이 없어요. 발톱 대신에 돌로 공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에 형이 허락하였다. 동생은 날카로운 돌을 쥐고 꿈의 심장을 때렸다. 꿈은 죽으면서 자신을 매장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sup>35)</sup>

④는 에벤키족에 전해오는 또 다른 이야기로 꿈과 남자 형제의 대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③과 유사하다. 처녀는 수꿈과 동침하여 새끼 꿈을 낳고, 인간 남성과 혼인하여 사내아이를 낳는다. 새끼 꿈과 사내아이는 형제로 자라 힘을 겨룬다. 꿈은 물리적 능력에서 사내아이보다 우위에 있지만, 사내아이는 “날카로운 돌”을 사용함으로써 꿈과의 능력차를 극복한다. 분명히 꿈의 공격성과 힘은 인간인 남동생보다 월등하다. 반면에 남동생은 자신에게 꿈의 날카로운 발톱이 없다는 합리적 근거를 내세워 도구를 사용할 명분을 획득한다. 합리적 이성인 근거한 말로써 남동생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

한편 여성이 인간남성과의 동거를 깨고 자연으로 상징되는 꿈과 결합하는 구도에서 꿈의 성별이 수컷, 즉 또 다른 ‘남성’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꿈은 인간남성과 대척점에서 있으면서 한 쪽은 완전한 ‘자연’을, 다른 한 쪽은 완전한 ‘문화’를 상징한다. 이는 우리가 흔히 “남성다움”을 이야기할 때 인위성과 자연성 모두를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같다. 문화에 속한 남성은 합리적 사고로써 인위적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기능하고, 자연에 속한 수컷은 거친 야성을 통해 용감무쌍한 기세를 펼쳐 보이는 존재로 기능한다. 문화와 자연 양측은 서로 팽팽한

35) 박진석, 앞의 책, 188쪽.

대립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결국 문화로 상징되는 인간 남성이 자연으로 상징되는 곰을 제거함으로써 문화의 승리와 우월을 보여준다. 이 사이에서 여성은 원래 문화의 자리에 놓여 있다가 곰이 속한 자연의 자리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성을 완전히 자연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연에 종속되어 보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의식이 있는 존재로서 여성 역시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 곰의 가죽을 쓰고 있는 여성의 몸에는 분명 ‘여성용 가리개와 장식물’이 존재하고, 자신을 살해한 인간세계에 ‘고기를 사용하는 의례’의 절차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 여성 역시 자연을 초월하고자 하는 문화의 기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다.<sup>36)</sup> 이를 통해 볼 때 동북아시아 곰 설화의 영역 속 여성은 자연과 문화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자연을 덜 초월했다고 여겨지고, 문화와 자연의 위계에서 ‘중간 위치’에 놓여 이쪽과 저쪽을 오고가는 것이다.

#### 4. 한국 곰 설화에 등장하는 암곰

그렇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에 전승되는 곰 설화의 자장(磁場) 안에서 한국 곰 설화의 위치는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곰 설화는 몽골이나 만주, 시베리아 같은 다른 동북아시아 지역에 비해 그 내용이 매우 단조롭다. 타 지역 곰 관련 설화에서 발견되는 곰의 기원이나 곰의 능력, 곰 제의 등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 곰 설화의 중심 내용은 인간(남성)과 암곰의 결합이다. <단군신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설화에서 인간(남성)과 암곰의 결합은 비극적 결말에 이른다.<sup>37)</sup>

36) 세리 오트너, 앞의 글, 141쪽.

37) 이용범, 『한국 곰 신화의 유형과 특징』, 『동북아 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①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려 보내 인간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당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속에 살고 있었는데,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항상 기원했다. 이때 환웅이 신령한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되,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라고 말했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받아먹으면서 삼칠일 동안 금기했는데, 그 결과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한 호랑이는 사람의 몸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를 단군왕검이라고 불렀다.<sup>38)</sup>

①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신화>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신화전설 중에서 가장 일찍 기록된 <단군신화>는 한국의 선민들이 태고시절에 갖고 있던 곰 토렘신화가 조상숭배와 밀접한 연관성을 띠며 나타난다. 또 후세의 고대국가창건과 연관되어 왕권신화의 형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sup>39)</sup> <단군신화>에서 암곰은 인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인간으로 변한 뒤에는 임신하기를 소원한다. 자연세계에 머무는 곰은 오히려 자신이 거주하는 ‘자연’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인간세계로 편입되길 갈망한다. 곰이 인간으로 변하는 방법은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만으로 일정기간 동안 ‘금기’를 지키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곰은 자신의 야성을 통제하고 여성의 몸을 얻는다. 여성으로 변모하자 웅녀는 이제 후계를 생산하길 원한다. 이에 환웅은 신에서 인간으로 변해 웅녀와 동침하여 웅녀가 아들 단군왕검을 낳게 해준다. 환웅 역시 인간으로

동북아역사재단, 2009, 62~63쪽.

38) 일연, 『삼국유사』, 김원중 옮김, 민음사, 2007, 31~32쪽.

39) 김관웅, 앞의 글, 24~25쪽.

변화한 상태에서 여성이 된 곰과 결합한다.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웅녀와 환웅의 결합은 이른바 자연계에서 다른 종 사이에 이뤄지는 이류 결합의 모순이 사라진 결합 형태를 보여준다.<sup>40)</sup>

건국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단군신화>는 암곰 웅녀에게 건국주를 탄생시키는 ‘대리모’의 역할을 부여한다. 암곰은 인간 여성인 ‘웅녀’가 되기 위해 인간-남성-신인 환웅에게 기도하고, 이어서 ‘어머니(국모)’가 되기 위해 기도를 올린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동물’의 권력관계는 ‘남성-여성’의 권력관계로 전환된다. 여기서 여성은 동물인 곰과 완전히 동일시됨으로써 보편적 인간인 남성의 하위에 자리하게 된다. 때문에 웅녀는 환인-환웅-단군의 계보에서 스스로 타자화되고 단군을 생산한 뒤 이야기에서 완전히 사라진다.<sup>41)</sup>

② 집도 절도 없이 해변가에서 조개를 주워 먹고 사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곰이 나타나 노인을 업고 태평양을 건너 자기가 사는 산의 동굴로 들어갔다. 곰은 노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동굴을 막았다. 또 썰과 토끼를 잡아 오고, 실과 과일을 따다 주었다. 생식만 하다보니 노인은 익힌 음식을 먹고 싶었다. 노인이 말은 안통하고 대충 형식으로 “뭘 좀 끓여 먹어야겠다”고 하자, 곰이 노인을 위해 불을 피워 화식(火食)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곰과 노인은 정이 들어 부부가 되었다. 한편 곰은 15년 동안 생사를 하면 왕이 될 예정이었다. 매년 선달 그믐날 저녁에 모든 짐승들을 모아 회의를 하였는데, 노인은 짐승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곰과 동물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마다 하늘에서 금전 한 닢이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모인 금전이 모두 열한 개였다. 곰과 노인 사이에서 인간아들이 출생한다. 노인은 아들에게 말과 글을 가르쳐 서로 대화를 하였고, 아들이 어떻게 자신이 곰에게서 태어났느냐고 묻자 노인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아들

40) 이용범, 앞의 글, 68쪽.

41) 조현설,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 9, 한국 구비문학회, 1999, 6~7쪽.

이 사람은 사람들이 사는 데로 가야 한다며 배를 준비했고, 노인과 아들은 곰이 동물 회의를 하는 틈을 타서 떠난다. 곰은 도망가는 부자를 보고 쫓아 오다가 되돌아가 동물회의 때마다 하늘에서 떨어져 모았던 금전을 가지고 와 던져 주었다. 노인과 아들은 육지에 도착했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선비가 되어 장가를 가서 잘 살았다.<sup>42)</sup>

②는 곰과 혼인한 노인 설화이다. 등장인물은 노인과 암곰, 그리고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노인은 바닷가에 있다가 암곰에게 잡혀 동굴에서 암곰과 동거하게 된다. 곰과 노인은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암곰은 노인을 붙잡아두기 위해 동굴을 막고, 노인이 살 수 있도록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을 제공해준다. 암곰은 자연에 거주하는 ‘짐승’으로 노인과 다른 종류의 생명이지만, 완전한 ‘여성’으로 분하여 인간인 노인과 동거하고 결합하여 인간(아들)을 생산한다.

그러나 노인과 아들 사이에서 암곰은 어미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완전한 ‘동물’로 인식된다. 노인과 아들은 말과 글로 서로 소통하고 아들은 노인에게 “사람은 사람들이 사는 데로 가야한다”며 곰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암곰과 암곰이 속한 세계는 단지 아들과 노인에게 ‘탈출해야할 세계’일 뿐인 것이다.

암곰은 짐승과 여성의 정체성을 오가며 노인과 아들의 삶을 보조한다. ②에서 ‘자연세계’와 ‘인간문화’의 대칭적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인간세계에서 유입된 남성에게 매달리고 떠날 때는 축복까지 해주는 자연세계의 곰과 자연세계를 벗어나 인간세계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문화’의 우월함만이 나타날 뿐이다.

③ 봉화산 꼭대기 커다란 소나무 아래 암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인간이 되고 싶었던 곰은 소나무 밑에서 100일 기도를 드려 아리따운 처녀가 되

42) 최정여,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 대구광역시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668~674쪽.

었고, 사냥할 때만 곰으로 둔갑하였다. 어느 날 처녀는 사냥을 나왔다가 길 잃은 사냥꾼을 구해준다. 사냥꾼이 처녀에게 먹을 것을 청하자, 처녀는 그것을 먹으면 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 사냥꾼이 이를 승낙하여 둘은 굴속에서 함께 산다. 사냥꾼은 처녀와 1년 동안 살다가 가족이 보고 싶어 굴을 빠져 나와 도망쳤다. 처녀는 사냥꾼을 찾아 헤매다가 지쳐 봉화산의 소나무에 목을 매 죽는다.<sup>43)</sup>

③은 경북 고령군에 전해오는 봉화산 처녀 곰 설화이다. 등장인물은 암곰과 사냥꾼이다. 여기에서도 곰은 인간이 되길 간절히 원해 100일 기도를 드려 처녀로 변한다. 특이한 점은 사냥할 때만은 자신의 뜻대로 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처녀는 산 속에서 길을 잃은 사냥꾼을 도와주고는 동거를 시작한다. 일정기간이 지나자 사냥꾼은 다른 이야기에서 그러했듯이 곰으로부터 도망친다. 인간세계에서 유입된 남성이 사라졌을 때 곰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위에 제시된 세 이야기를 비롯한 기타 한국의 곰 설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이점은 다른 동북아시아 지역 곰 설화와 달리 애초에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 곰 설화의 여성은 인간이 아닌 암곰의 모습에서 출발한다. 이는 여성이 곰과 인간세계를 오가며 둘의 중간지점에 놓인 존재라고 보는 만주-통구스족의 설화보다 더 단순한 구조를 보여준다. ‘여성= 곰’이라는 등식의 구조는 자연과 여성을 완전히 동일한 위치에 놓은 인식세계를 반영한다. 더불어 곰은 산과 동굴로 나타나는 ‘자연’에 거주하면서 인간이 되길 소망하고, 인간세계로 편입되길 욕망한다. 때문에 인간세계를 상징하는 남성과 결합하고자 하고 후계로 인간을 생산하길 원하며, 인간으로서 남성이 사라졌을 때 스스로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자연과 완전히 일치되면서 스스로 자연이길 거부하고 인간과 결합하길 갈망하는 한국 곰 설화의 여성(암곰)에게서 문화의 위

43) 이용범, 위의 글, 74쪽.

업과 우월감은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드러난다.

단군신화를 제외한 다른 한국 꿈 설화 속에서 꿈은 모두 남성과의 결합을 강압적으로 주도한다. 이는 표면적으로 ‘자연’을 상징하는 꿈의 힘이 ‘인간(문화)’을 상징하는 남성의 힘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의 월등함을 드러내는 듯하다. 그러나 꿈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남성과의 결합은 오히려 꿈이 거주하는 ‘자연’보다 인간이 거주하는 ‘문화’의 세계가 우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러한 꿈의 강제적 행동은 남성이 꿈이 거주하는 자연으로부터 이탈하여 인간세계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당위적 논리를 제공해준다.

## 5. 맺음말

설화 속에는 시공을 초월한 집단적 사고와 경험들이 파편처럼 널려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민들에게는 인간이 세워놓은 ‘문화’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자연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다. 그것은 여성을 자연과 더 가까운 존재로 규정짓고 여성과 꿈을 살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꿈과 여성은 언제나 죽음을 맞이하고 인간으로써의 남성에게 정복당한다. 기타 만주-통구스족이 거주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꿈 설화를 살펴보면, 여성에게 꿈 가족을 덮고 자지 못하게 한다거나, 꿈과 관련된 것을 금지 하는 등의 내용이 등장한다. 이는 곧 문화의 영역 안에서 규율과 관습을 통해 자연과 더 가까운 여성을 통제하려는 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라는 큰 틀 안에서 볼 때, 한국의 꿈 설화에는 좀 더 단순하고 분명하게 자연과 문화의 대립이 드러났다. 다른 지역과 달리 한국 꿈 설화에서 여성은 자연과 문화의 경계자로서 애매모호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여성은 완벽히 자연의 본성을 지닌 꿈의 모습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여성은 암곰과 온전히 일치하고, 암곰은 온전한 여성성을 대변한다.



그러나 그 내면의 욕망은 완벽히 문화를 향한 것으로 기능함에 따라 이야기 속의 여성은 남성으로 상징되는 문화로의 철저한 종속성을 보여주고, 본성과 욕망의 괴리 사이에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기타 만주-통구스족의 곰 설화에서 곰과 여성을 비슷한 위치에 놓고 자연과 문화의 대립 및 문화와 남성의 우월성을 구축시키는 양상은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었다.

모계제도에서 여성은 지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 ‘자연’, ‘여성’의 신비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숭배하던 시대에도 여성을 높은 자리에 앉히거나 내려오게 하는 일은 언제나 남성의 일이었다. 여성은 자연의 마법적인 풍요를 구현하지만 자연과 마찬가지로 정복되고 소유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 ‘대지’, ‘어머니’, ‘여신’으로 등장하는 여성은 남성과 동류가 아니었다. 여성은 그렇게 인간 영역의 주변부나 아예 동떨어진 바깥에 있었다.<sup>44)</sup>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에 소속되는 존재는 아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본성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고, 인간은 평생 그 본성을 거부하는 동시에 애타게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인간이 구축한 문화는 자연에서 뿔어져 나오는 야성을 불결하다 하면서도 갈망했고, 열등하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거친 야성은 마치 곰에 대한 모순적 태도로 드러나는 듯하다. 이는 곰 축제의 상징적 의미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문화 인류학자 폰 슈렌크는 시베리아 최동단 마을 테바치의 곰 축제에 대해 “힘이 센 육식동물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욕망이 동기가 됐던 부분도 있고, 곰의 복수심과 곰에 대한 미신적인 두려움이 원인이었던 부분도 있다. 곰에게 집의 가장 상석을 내주었고,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곰의 허락은 받았지만 마지못해 행동한다는 인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주장하였다.<sup>45)</sup> 끊임없이 곰을 죽이고 잡아먹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르고 달래고 받들어 모시는 인간의 양가감정은 곰 설

44) 시몬느 드 보부아르, 앞의 책, 99~101쪽.

45) 베르트 브루너, 앞의 책에서 재인용, 152~153쪽.

화와 현실의 꿈 의례 속에 일정부분 드러난다.

문화가 지닌 양가감정은 자연과 더 가깝게 여겨졌던 여성에게도 대입되었다. 분명히 여성이 가진 생물학적 특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자연과 더 가깝게 여겨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남성중심사회의 문화에 있어 약자로 기능하게 된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수많은 시간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설화 속 의식과 무의식이 만들어 놓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문화와 자연 사이의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문화라는 개척지의 주변부에 위치한다는 것을 뜻했다. 곧 동북아시아 꿈 설화 속에서 여성은 문화-자연의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그녀들은 때로는 문화와 연관되고 때로는 자연과 일치되면서 모호한 지위에 놓이고 모순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꿈 설화에 마련해놓은 여성의 위치를 발견하고 자연에 대한 문화의 우월감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설화는 그렇게 원시사회의 집단적 사고를 보여준다. 그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내려온 우리의 사고이기도 하다. 꿈과 여성은 이와 같이 생물학적 기능을 넘어 설화가 마련해놓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면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부여받았다.

## 참고문헌

- 강영경, 『단군신화에 나타난 용녀의 역할』, 『여성과 역사』 16, 2012.
- 곽진석, 『시베리아의 만주·통구스족 신화론』, 지식과 교양, 2011.
- 곽진석, 『시베리아 오로치족 꿈 의례의 양상과 원시적 사고에 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35집, 2012.
- 김관웅,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동이문화의 연관성』, 『연민학지』 15, 2011.
- 김열규, 『한국인의 신화』, 일조각, 2005.
- 김현선, 『동북아시아 꿈신화 비교와 꿈의례 연구』, 『한국의 민속과 문화』 10, 2005.
-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정재, 『동북아의 꿈 문화와 꿈 신화』, 민속원, 1997.
- 이정재, 『시베리아 부족신화』, 민속원, 1998.
- 이평래 외, 『동북아 꿈 신화와 증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일연, 『삼국유사』, 김원중 옮김, 민음사, 2007.
- 조운경, 『동북아시아 꿈신화·꿈전설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중국 어문춘족 어원커족의 기원신화와 한국 웅진전설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28, 2011.
-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사, 2009.
- 조현설, 『용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회, 1999.
- 차운정, 『숲의 생활사』, 웅진닷컴, 2004.
- 나카자와 신이치, 『꿈에서 왕으로』, 김옥희 옮김, 동아시아, 2005.
- 니콜라스 손더스, 『동물의 영혼』, 강미경 옮김, 창해, 2005.
- 레비 스트로스, 『야생의 사고』, 안정남 옮김, 한길사, 1996.
- 미셸 짐발리스트 로잘도 엮음, 『여성·문화·사회』, 권숙인·김현미 옮김,

한길사, 2008.

베른트 브루너, 『곰과 애증의 역사』, 김보경 옮김, 생각의 나무, 2010.

시몬느 드 보부아르, 이희영 옮김, 『제2의 성』, 동서문화사, 2009.

체렌소드눔, 『몽골 민간 신화』, 이평래 옮김, 대원사, 2001.

한스-요아힘 파프르트, 『통구스 족의 곰 의례』, 강정원 옮김, 태학사, 2007.

## Abstract

### The status of females in the bear tales in Northeast Asia

Kang Yeong Ju

This paper's purpose is to analyze the status of females in the bear tales in Northeast Asia. Among the Manchu-Tungusic bear tales, generally the woman characters leave the human society and cohabit with the bear. Such women's behavior shows symbolically females more closer to nature than males. The desire of murdering that the man characters experience about the bear and the woman characters presents males more closer to culture than females. Females in the bear tales in Northeast Asia take their position between the nature and the culture.

Also generally the bears in the Manchu-Tungusic bear tales are the male bears. the male bears have confrontation with males. The male bears completely symbolize the nature and males completely symbolize the culture. Males symbolized the culture have the grab on the bears symbolized the nature by eliminating the male bears. Between males and the bears, originally females have their position in the culture. But increasingly they have their position in the nature by uniting the bears.

The woman characters in Korean bear tales are completely identified with the bear from the first. The bear tales in Korea shows definite opposition between the nature and the culture much more than those in any other country in Northeast Asia. Though The woman characters in Korean bear tales thoroughly equal to

the female bears, they are always long for the culture that mankind has built. It shows that females in Korean bear tales are completely subordinate to males symbolized the culture.

Key words : bear tales, bear culture, Northeast Asia, females, Nature, Culture, Siberian  
Manchu-Tungusic bear tales, the myth of Dangun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